

OpenDoors

2019. 07. Vol. 207

박해와 선교현장
팔레스타인 *Palestine*



오픈도어 7월 캠페인

박해받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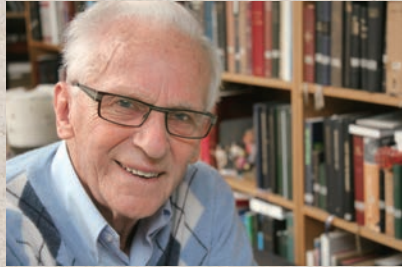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주의 기도(8)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 6:13)

20세기 후반에 교회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피상적으로 변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며, 사도들이 본 것과 같은 기적을 보기 원하며, 더 깊은 삶을 살기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너무 얕파해서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아 보이기를 원하며 그들과 같은 말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그들처럼 기도하고 살며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생동감 있고 흥미진진한 것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진정한 신앙 경험 대신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되며 무기력, 연약하며 헛된 삶을 살게 된다.

오순절에 신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우리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손을 올린다. 진정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성령의 은사를 과시하기도 한다. 우리는 오순절과 역사상 위대했던 부흥에 임하셨던 것같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그분의 백성 위에 임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설사 우리가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집어엎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이 영원히 깨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에는 피상적인 신앙 생활로부터 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상적인 신앙 생활은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입술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긴급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문밖에 세워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지불했던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교회에 주신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지금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구원의 댓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을 위하여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댓가 없이 그러한 특권이나 복을 받을 수는 없다.

댓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겠는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 12:25)고 말씀하셨다.

CONTENTS

-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 XIII
- 06** 박해와 선교 현장
팔레스타인(Palestine)
- 10** 박해받는 여성 캠페인: 스토리
잃어버린 사랑 가운데 찾은 믿음 / 현장 사역자 인터뷰
- 14** 2019년 박해 지도
- 16** 박해받는 여성 캠페인: 사역
“지금 이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 22**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 23** 여성 사역 캠페인



04



06



10



16

OpenDoors 2019년 07월호 | 통권 207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운환,
이동현, 배춘섭,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 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 _오현정 간사, 정규일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나오미, 레아, 수지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_이종만 목사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결트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XIII

드보라

집결소에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중국에 왜 멋진 집에 공주가 되었다는 동영통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신비로움이 있었던 탓일까? 나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주문’을 열심히 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중얼거렸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보니 할머니와 손자가 간 멋진 집은 교회였다. 그 교회에서 훈련받으며 10년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서 바로 ‘공주’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설명해주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분을 그 감옥에서 만났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기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냥 가르쳐준 기도문을 따라 열심히 소원을 빌었다.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 집결소 인근에 사는 내 동생을 찾아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동생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바로 아래 남동생이 그 집결소가 있는 도시 인근에 살았다. 동생이 돈을 좀 쓰면 나도 빠져나올 수 있겠다 싶었다. 문제는 가족을 찾는 것도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뇌물로 돈이나 담배를 찢러줘야 한번 찾아볼 수 있겠는데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었다. 이래저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도인지도 모르고 뭐 되겠나 싶으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 될 때마다 중얼거렸다.

집결소의 죄수들은 이전 저런 곳으로 노동을 가는데 개중에는 외화별이 회사들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 외화별이 회사는 죄수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일터였다. 돈은 당연히 못 받지만 그래도 옥수수떡하고 국수하고 잘 챙겨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기가 좋은 만큼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는 사람만 갈 수 있었다. 나는 못 갔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외화별이 작업장에 내 이름이 있었다. 이게 웬 일인가 싶은 마음으로 작업장에 갔더니 건설현장이었다. 큰 벽돌을 등에 매고 올라가는데 안전장치도 전혀 없이 작업했다. 나는 처음으로 건설현장 일을 하려니 너무 힘이 없고 맥이 빠졌다. 일하는 도중에 잠깐 쉬고 있는데 악질 감독이 나를 찌려보았다. 나이도 어린 것이 죄수들을 들들 볶고 막말을 내뱉으며 일을 시키는 놈이다. 불뚱이 나에게 튀었는가 싶어 움츠려 있

는데 그놈 입에서 대뜸 “야 너는 여기 친척 없어?” 하는 질문이 나왔다. 다행히 그놈 눈에도 내가 불쌍해 보였는가 보다.

“있습니다.”

“친척이 있으면서 이 주제나 뭐하는 짓이냐 에휴... 어디 있니? 어디니?”

“~~ 도시입니다.”

“그래? 어느 사업장 누구인데?”

“~~ 입니다.”

이렇게 나는 무심결에 내 동생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작업은 계속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밥으로 옥수수 떡이 나왔다. 듣던 대로 역시 이 외화별이 사업장이 밥은 잘 줬다. 그간 먹던 것에 비하면 너무 진수성찬이라 정신없이 먹고 오후 작업을 하려는데 그 악질 간부가 나를 찾았다.

“야, 그 친척 ~~~ 맞아?”

“네 맞습니다.”

“야 이 간나야, 니 친척 찾았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 악질 간부가 내 동생을 찾아서 내 소식을 알려준 것이다. 탈출에 실패해서 집결소에 있으면서 다음에는 어디로 끌려갈 것인가 걱정하며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이렇게 내 동생을 찾았다.

간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 할머니 참 용하다’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서 저녁에 받은 옥수수 국수면 절반을 봉지에 싸서 할머니에게 줬다.

“야, 니 시킨 대로 했더니 동생 찾았다. 하나님인지 뭔지 참 용하다.”

할머니는 자기 일처럼 너무 기뻐하면서 “잘됐다 잘됐다” 하고 좋아했다.

나는 이렇게 동생을 찾았다. 그렇지만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할머니는 북에 남은 가족도 없으니 나갈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빨리 나

갈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다. 가족도 없는 사람이 어찌 나가는지 솔직히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복송되었는데 그 당시 손자의 나이가 15살이었다. 이 손자가 집결소 간부들의 이쁨을 받아서 할머니도 일도 보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던 중에 여름이 끝나가고 날씨가 선선해졌다. 김장철이었다.

집결소에서도 대량으로 김장을 담갔다.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추나 무, 소금 등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에는 소금이 귀하고 가격도 상당히 나간다. 그런데 하루는 집결소 간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 할머니 이름으로 중국 쪽에서 집결소로 자그마치 2톤이나 되는 소금을 선물한 것이다. 덕분에 이 할머니와 손자는 모범출소가 됐다.

가족도 없는 할머니의 안위를 걱정했던 나로서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할머니 말대로 정말 나보다도 먼저 집결소에서 나가게 된 것이다. 다만 지금도 아쉬운 것은 그 할머니의 이름이나 살았던 지역 등을 여쭙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와서 사람을 찾고 싶어도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다. 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할머니... 잘 지내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또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던 그 할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생각나며 오늘따라 그 집결소에서 만난 할머니의 모습이 그리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의 공주로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팔레스타인

Palestine



인구: 5,053,000명

기독교 인구: 46,000명(0.9%)

박해정도: 2019 세계 박해 보고서 49위

수도: 라말라(Ramallah)

주 박해 요인: 이슬람 억압, 독재정권, 종교 민족주의, 민족간 갈등

보고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조사에서 팔레스타인은 57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49위를 차지 하였다.

1. 팔레스타인 영토의 통치

-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서안지구(West Bank), 가자지구(Gaza) 그리고 남부지역에 조금 남아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주체와 법의 통치를 받고 있다.
- 서안지구(West Bank)는 파타(Fatah Party)당이 세속주의 수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스리고 있다. 비록 기본법은 이슬람 샤리아(Sharia)법을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세속주의를 수용하고 무슬림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포용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정부의 고위직에도 오를 수 있다.
- 가자지구(Gaza)는 이슬람 신봉자 하마스(Hamas)가 실질적 통치자이다. 하마스 정부는 이슬람과 샤리아 법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치한다. 기독교인들은 소수로서 이 지역에서 수용적이다.

- 이스라엘 군법(Military Law)은 서안지구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된다.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반이스라엘 활동은 감시를 받으며 이 법에 의해 제한 받는다.

2. 주된 박해의 양상

이슬람의 억압(강함):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탄압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가자지구(Gaza Strip)에서의 박해가 서안지구(West Bank)보다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것은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급진 이슬람 단체들 때문이다. 하마스(Hamas)보다도 더 급진적인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가자지구에서 활동해왔으며 서안지구로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들 단체 중에는 IS의 말단 세파 조직들도 포함된다. 아직은 상당한 권력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도 이들 단체의 영향력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전통 사회의 가치와 이념들이 강화되는 현상도 보인다. 팔레스타인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사상들은 이슬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종교가 곧 한 가족의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이슬람을 배교하고 개종하는 것이 곧 자신의 가족을 배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개종자에게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그 지역을 떠날 것을 강요하며, 개종자들이 실제로 신앙을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독재정권의 박해(강함): 독재정권 아래에서 족벌주의가 만연하여 유력한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및 부족들이 혜택을 받는 사회적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파타(Fatah)당과 민족주의 운동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선거가 열리지 않은 최근 몇 해 동안 정부의 민주적 대표성은 열어졌고, 정부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정당인 파타(Fatah)당과 하마스(Hamas)당 모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 종교의 자유와 표현



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특히 가자지구 내에서는 더욱 더 교회 지도자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많은 압박을 경험하는데, 예루살렘 내 교회 지도자들은 비자와 거주 허가증 취득을 위해서도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종교 민족주의(중간):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와 가자지구에 대한 확고부동한 장악이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압박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한다. 이러한 압박은 첫째, 이스라엘의 외부 통제로부터 온다. 즉, 이집트와 가자지구 국경을 제외한 모든 국경에 대한 통제와 이스라엘에 입국하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사이를 여행할 수 있는 허가 시스템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성지들을 방문하는 것조차 제한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스라엘의 내부 통제에서 기인하는 압박도 있는데, 이는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에 따라 “정착촌 C구역”(Area C)에 속하는 서안지구의 60%에 해당하는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내부 통제를 지칭한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C구역”에 대한 통제는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다



른 지역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직접 통제를 의미한다. 이 지역 내부 검문소는 이 지역을 통제할 뿐 아니라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제 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서안지구 내 기독교 공동체를 지역 내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족간 갈등(중간): 보수적인 팔레스타인 사회 내에서 부족주의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미치며, 이런 사회의 특성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개종이 곧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꾸는 시도로 인식되어, 자신의 확대 가족 전체와 등을 지고, 자신이 자라온 문화와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로 여겨진다. 개종은 따라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결례라는 인식이 있다.

3. 박해의 원인

팔레스타인 사회는 보수적인 편이며, 가족 관계가 종교와 긴밀하게 연결된 결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뿐만 아니라 종교의 종파를 바꾸는 것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서안지구의 법은 그나마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가자지구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상당히 제한된다.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도 소수자로 여겨지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종교로 인해 소수자로 여겨진다.

4. 박해의 결과

모든 기독교 단체들은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통제된 여행과 다른 제한사항들에 의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박해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박해는 그들이 기존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급진 이슬람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접근에 역사적 교회들이 상당히 외교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급진적인 유대인에 의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학대도 일어난다. 몇몇 역사적 전통을 가진 교회와 관련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신학적 문제와 교인을 빼앗아간다는 인식 때문에 큰 교회들의 반대에 직면한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초교파적 교회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5. 박해의 구체적 예시

-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사회적 압력에 의해 쉽지는 않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개종 행위에 적극적인 것이 무슬림 이웃들과의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한다. 중동 지역의 하나의 불문율은 상대방의 종교를 비난하지 않으며 또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상호경계(Red Line)를 침범한 것으로 기존의 모든 관계가 파괴된다.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 조사 기간 동안, 한 여성 개종자는 가족들에 의해 가택에 상당 기간 동안 감금된 바가 있다. 또한 개종 여성들을 무슬림 남성들과 강제 결혼시킨 사례들 또한 보고되었다.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박에 의해 이주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7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에 관한 보고서 39쪽에 따르면 정치적 불안정, 예루살렘 지역 기독교 공동체의 제한된 능력,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유지되는 건축 제한, 기독교 성직자들이 비자와 거주 허가증 취득에서 겪는 어려움, 이스라엘 정부의 가족 상봉 제한, 평화 구축 과정에 대한 불신, 여행의 제한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자극제가 되어 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서의 기독교인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건과 인터뷰

박해 상황을 돌보는 사역자

생기 넘치고 열정적인 20대 팔레스타인 크리스천인 자브라(Jabra)는 아이디어가 풍부해서 창의적이고 의욕적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사역을 위해 팔레스타인 언어로 기독교 랩 가사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닌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으며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브라의 헌신은 서안지구(West Bank)에서 매우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베들레헴 신학대학(Bethlehem Bible College)에 입학하면서 분명해졌다. 식구들은 자브라가 좋은 직장 대신 미래가 불투명한 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마지못해 지켜보았지만,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기독교 상담사가 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 한발자국 나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이 사회 전반적으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들이 점점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을 감당해야 한다. 자브라는 이러한 상황이 매일의 삶에서 어떠한지 알려준다.

“저는 우리 반에서 유일한 신자였는데, 아마도 어쩌면 학교 내 유일한 기독교인일 수도 있었어요. 동기들이 제 신앙에 대해 묻고 저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라는 자브라의 고백은 팔레스타인 기독교 상담사가 되어야겠다는 자신의 동기가 되었다. 자브라를 만나는 사람은 그가 자국 청소년에 대해 열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독교 상담을 통해 소명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신실하게 머무르길 원한다. 자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브라의 꿈은 상담사로 그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돕는 기초에 대해 배우길 원해서 오픈도어가 후원하는 트라우마 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미래 직업에 대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그는 모든 기독교 청소년들이 상담사와 연락 가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의 꿈이 현실화되기엔 현재 상담사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저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중

요하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최근에 자브라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상담가로서 그의 미래 비전이 더욱 확실해졌다. “저는 학교를 방문했는데 13살 소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시다. 유일한 신자라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학생과 대화하면서 비록 혼자지만 수업을 계속 받도록 격려했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원하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지만, 청소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회에서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어요.” 트라우마 상담 훈련가들과 학교에서 함께 있는 지 여러 달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다. 그는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다 우연히 기독교 랩송을 떠올리게 되었고 팔레스타인 언어로 기독교 랩송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자브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위해 무엇을 하 시던 간에, 분명한 것은 그는 군중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오픈도어 사역팀은 자브라가 자국 청소년을 향한 그의 비전 성취를 전략적으로 돕고 있는데, 증가하는 기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후원: 우리은행 1005-701-884976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박해 받는 여성 캠페인 스토리

스토리 1

잃어버린 사랑 가운데 찾은 믿음

사라(Sara)가 넷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떠났다. 사라는 자신의 전 남편 아퀼(Aquil)에게는 항상 다른 아내가 있었다고 말해준다. 무슬림 사회에서 남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부인을 갖는 것이 허락되는데, 남편 측에서 부인들의 생활을 부양하는 경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퀼은 바람둥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지만, 공식적으로 사라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다. 아퀼은 사라와 두 명의 자녀, 지금은 다 자란 라뮤엘과 그때 당시 4살인 존의 생계를 책임졌다. 이들에게는 세 번째 자녀 미샤엘이 있었지만 이 아이는 사라가 출산할 당시에 사망하였다.

사라의 남편이 그녀를 떠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남편은 사라에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퀼은 사라가 4번째 아들 벤지를 임신했을 때 떠났다. 사라는 남편이 떠난 것은 기적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긴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싱글맘으로 그녀의 아이 레뮤엘, 존, 벤지를 양육했다. 싱글맘의 고충은 시작되었는데 아퀼은 아무런 재정적 보조를 하지 않았고, 그녀가 마지막 아이를 낳을 때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절을 할 정도였다.

사라는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녀는 이 또한 주님이 허락하심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있음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장남인 레뮤엘은 일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는데, 레뮤엘의 선생님이 그에게 왜 공부를 그만두는지 묻자 돌봐야 할 동생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였다. 둘째 아들 존은 먹지 못하면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레뮤엘은 먹지 못해도 학교에 가는 아이였다.

사라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이로 인해 걷는 것이 불편해졌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다리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아이들과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계속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면 걷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고, 결국 사라는 걷



게 되었고, 장판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사라의 손에 닿은 희망

사라는 필리핀 남쪽의 사마 부족에 속한다. 이들은 나뭇잎으로 형형색색의 장판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1999년부터 성경공부에 참가한 이래로 사라는 카호라탄 장판을 만들었기 시작했다. 오픈도어는 사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사회경제적 지원을 시작했다. “카호라탄”은 사마 부족 언어로 “희망”을 뜻한다.

사라는 장판을 만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바꾸셨고, 결국 장판을 만듦으로 그녀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돈을 벌 수 있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전에 사라는 자녀들이 초등학교만 이라도 졸업하길 바랐다. 하지만 지금은 둘째 아들 존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모든 학업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먼저 구하기

사라는 더욱더 말씀을 의지한다. 특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사라는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재하시는데, 이전에 남편이 있을 때 했던 고민들을 지금도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남편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스토리 2

현장 사역자 인터뷰

Q: 기독교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A: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기독교 여성들이 매일 박해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남성들이 경험하는 박해의 경우 주로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폭행과 살해 등은 그대로 노출되고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박해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나타나며, 폭력적이지만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박해는 널리 알려지지만, 여성에 대한 박해는 부끄러움으로 인식되고 그들 자신만의 것으로 치부됩니다.



Q : 기독교 여성에 대한 박해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A: 트라우마, 상처,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가운데 핵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실, 수치, 영적 정신적 문제들, 하나님에 대한 실망, 고립, 가족들에 의한 구타와 성폭력, 감금, 심지어 살해 등으로 나타납니다.

Q : 기독교 여성들에 대한 박해 양상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A: 기독교 여성들은 여전히 “간접적인” 희생자로 수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남편이 박해로 인해 죽거나 투옥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양상은 여성들도 직접적 박해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접 겪은 박해 소식들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학대는 꾸준히 가해지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적인 폭력은 이슬람 과격파가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박해와 공격 중 하나입니다.



Q : 오픈도어는 어떤 일을 합니까?

A: 오픈도어는 세 가지 단계에서 박해 받는 기독교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여성사역자 훈련: 여성에 대한 사역은 여성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박해로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돕기 위해 여성사역자들을 훈련합니다.
- “자립그룹” 지원: “자립그룹”은 박해로 인해 남편과 가족을 잃어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차원의 사역입니다. 성경공부, 교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게 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박해 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회자 훈련: 박해 받는 교회가 기독교 여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그들만이 직면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인식하고 목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Q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A: 질문은 단순하지만 답변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에 대한 대응은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해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고립되어 있고, 외부와 접촉이 알려질 경우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굉장한 위협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박해 받는 기독교 여성을 만난 사역자들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고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아줄 때 오히려 희망을 보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사역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기도와 후원으로 가능하며, 수치 대신에 영광으로 박해 여성 신자들을 품어줄 때 가능합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사역 캠페인 후원: 신한은행 100-027-21916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사건과 소식

박해 소식 1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이후 신성모독 사건 증가

2019년 5월 21일, 대통령 조코 위두두(Joko Widodo)의 재선출 이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선거 이후 일어난 폭력으로 인해 최소 6명이 사망했다. 폭도들 대부분은 자카르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어느 경찰 대변인은 신성모독 관련 사건들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직면하는 압박감은 지역 수준에 따라 다르다. 4월 초에 한 불교 여성은 지역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크다 불평하다가 신성모독죄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해 소식 2

이탈리아 무슬림과의 논쟁하다 칼에 찔린 기독교인

이탈리아 국영통신사 안사(ANSA)는 2019년 4월 23일, 한 조지아 출신이 종교에 관한 논쟁을 하다가 로마의 기차 터미널 밖에서 목을 찔렸다고 보고했다. 모로코 공격자는 종교적 증오가 상황을 악화시킨 요소라고 언급하였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오픈도어의 박해 분석가인 레이첼 니코는 "일부 이슬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종교적 증오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와하브파 또는 살라피 이슬람을 촉진시키고 있다. 무슬림들은 주로 산업화된 북부 지역(롬바르디아, 베네토, 에밀리아 로마냐, 피에몬테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이슬람 과격파가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이 이번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전했다.

박해 소식 3

이라크 새로운 공동묘지가 IS의 잔인함에 대한 더 확실하게 알려준다.

이라크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IS에 의해 살해당했다. 2018년 3월 2일, 이라크 현지 뉴스는 모술(Mosul) 주변 대략 40명의 기독교인들의 공동묘지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시리아 동방 정교회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유괴당했고, 그들 중 몇 사람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독교 십자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IS가 탈환했던 지역의 공동묘지로 뛰어 갔습니다. IS가 죽인 야지디스(Yazidis)를 포함해 70개 이상의 묘지들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박해 소식 4

북한 영양실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019년 5월 3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대로 유엔 세계식량기구는 현재 북한에서 1010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세계에 알렸다.

오픈도어의 토마스 멀러 박해 분석가는 "이 결과는 전체 인구의 40%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소식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국가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제재로 악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농기계 수리부품의 부족과, 2019년 5월 3일 BBC가 보도한 것처럼 가뭄, 장기간의 폭염, 홍수 등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도움에서도 배제되고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박해 받는 여성 캠페인 사역



사역 1

“지금 이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시골 크리스천 소녀들에 대한 오픈도어 사역

시골에서 올라온 크리스천 소녀들은 작은 공장이나 개인 회사나 병원에서 일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상사에 의해 종종 성적 학대나 부당한 착취를 당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서 이 소녀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있다. 현장 사역자 미라(Mira)는 증언한다.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미라는 도시에서 작은 직업을 갖고 일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크리스천 소녀들을 찾기 위해 정기적으로 쇼핑 거리나 유통상업지역을 찾아 다닌다.

“그들은 대부분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상 극도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경계를 풀고 우리를 신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들의 신뢰를 얻고 나면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나눕니다.”

미라(Mira)가 만나는 소녀들 대부분은 작은 마을, 때로는 이슬람 마을 출신이고 그들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 소녀들은 좋은 옷이나 신발을 사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버는 적은 돈은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극한의 필요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월급은 공장 아버지 지갑으로 가게 됩니다.”

차별과 잘못된 고소

이 소녀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힘이 없는 부류 중 하나이다. 그들은 크리스천일 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여성이다. 무엇보다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

속되는 갈등과 두려움과 수치스러운 압박 아래서 일합니다. 그들은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 스스로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미라는 저스틴(Justine, 16)과 디나(Dina, 17)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 동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월급을 받을 뿐 아니라 가게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도 즉시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직원이 돈을 훔쳤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무도 저스틴과 디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실제 범인은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강간과 폭행

성희롱은 크리스천 소녀들이 직장에서 겪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기 정말 끔찍하지만 나는 고용인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고용인들은 소녀들이 자신들과 함께 자도록 강요하고, 그들이 거절하면 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해고한다고 위협합니다.”

라일라(Layla, 17)는 미라가 정기적으로 만나던 소녀들 중 한 명이다. 저스틴과 디나처럼 그녀는 옷가게에서 일했다.

“가게 주인이 계속해서 라일라 앞에서 포르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포르노 배우들이 하는 것을 배우라고 라일라(Layla)에게 말했고, 라일라(Layla)가 못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수치와 처벌받지 않음

라일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서구에 사는 소녀라면 그녀는 당장 경찰에게 신고할 것이다. 가게 주인은 체포되고 그의 가게는 고객을 잃을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그렇지 않다. 크리스천 여성들의 성희롱에 대해 경찰은 거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소녀들은 그것을 신고하는 것도 두려워한다. 집에서조차 말하지 않는다. 소녀들의 상황을 미라는 설명해준다.

“이 불쌍한 소녀들은 더럽혀졌다는 수치감과 싸우면



서 매일을 살아가도록 남겨져 있습니다. 그 소녀들 중 많은 아이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없애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끝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스포츠

자매들의 이야기와 라일라의 이야기는 미라와 그녀의 동료들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의 일부일 뿐이다. 미라와 동료들은 사회가 소녀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없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고 함께 스포츠의 날을 계획하여 가집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뛰어 노는 것을 보며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는 다시 만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

미라는 라일라가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도왔다. 그녀는 지금 제자훈련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고, 회복하는 중에 있다. 라일라는 얘기한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사랑 받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사역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스틴과 디나도 새로운 직업을 찾았고 제자훈

련에 참여할 시간도 갖게 되었다.

“지금 이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

았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모임을 참석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들과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역 2

중아시아: 핍박을 피해 오픈도어 안전가옥으로 도피한 바티마

21세인 바티마(Batima)는 젊은 나이에 많은 목표를 성취한 장학생이다. 그녀는 대학에서도 최고의 학생이었으며 외국어에 능했고 타국 명문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몇개월 전 온 얼굴과 팔다리가 할퀴를 당하고 멍든 채로 거실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아직도 끔찍하다. 그녀는 가족들에 의해 온몸이 묶인 채로 구타당했다.

어떻게 똑똑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1년 전, 바티마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외국어를 배우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녀는 이 모임을 통해 더욱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다.

이 모임은 사실상 외국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바티마가 사는 무슬림국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친구들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깨닫게 된 바티마는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바티마의 가족들은 그녀의 개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기독교를 지지하지 않으며 그녀의 개종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 바티마의 아버지는 그저 처음에는 어린 그녀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려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날로 더해갔고 매일 매일 그녀는 주안에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8월초에 바티마가 친척들에게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자 모든 상황은 바뀌었다. 가족들은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친척들은 바티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으며 다시는 집에 데려오지도 말라고 말했다. 친척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밤 그녀의 오빠들과 언니는 그녀를 비참하게 구타했다.

“오빠들은 손과 발로 저를 구타했고 언니는 부엌에서 쓰는 밀방망이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결국 뇌진탕으로 기절했죠.”

뇌진탕의 충격에서 겨우 의식을 되찾았을 때 바티마는 결국 먹었던 음식을 모두 토할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다.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은 오빠들은 그녀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온몸을 묶었다. 오빠들은 또한 그녀의 휴대폰과 개인 서류들을 없애버렸고 바티마의 언니는 그녀의 성경책을 가져와 갈기갈기 찢어 던져버렸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와서 오빠들과 언니의 만행을 멈춰주길 바라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셔서 이렇게 말씀 하시더군요. ‘바티마! 너는 이런 꼴을 당하고도 싸다. 너는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바티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집과 가족을 떠나서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티마는 핍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는데 한 목사님을 통해 그녀는 오픈도어와 접촉할 수 있었다. 오픈도어는 안전가옥을 제공했고 그녀는 안전가옥에서 2달째 거주 중이며 지역 교회와 오픈도어의 지속적인 도움 속에 정기적으로 지역 크리스천들의 심방을 받고 있다. 그들의 격려와 기도를 통해 그녀는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제가 살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픈도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새 가족이 되어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황홀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저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바티마는 오픈도어 사역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눈물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 핍박의 무서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마저도 그녀를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바티마는 주님의 피난처를 찾아 도망칠 수 있었고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픈도어 가족을 통해 그분의 딸을 보호하셨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사역 캠페인 후원: 신한은행 100-027-21916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국내 사역자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방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회계 및 프로젝트 담당 (전임)	선교 관련 연구원 (전임 또는 파트)
모집인원	- 〇명	- 〇명
주요업무	- 일반회계업무 - 선교 관련 프로젝트 관리 (예산 및 집행 관련 실무)	-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 선교 현장 관련 연구과제 및 관련 사무업무 수행
지원자격	- 회계 관련 전공자 혹은 경력자 - 영어 업무 가능자 (해외본부 기준에 따른 업무간 영어사용 필수)	-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및 관련 학문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외국계 기업 등 영어사용 업무 환경에서 3년 이상 경력인 자	- 관련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연구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사역조건	- 4대보험 지원, 주 5일 근무, 급여 개별 협의	- 전임: 4대 보험 지원, 주 5일 근무, 급여 개별 협의- 파트: 근무시간 및 급여 협의
공통사항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공지사항 게시판))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모집기한 : 구인 시까지 - 문의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오픈도어 사무실을 후원해주세요



선교회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지 역: 서울 및 인근지역

기 간: 5년



선교회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700백만원

은 행: 신한은행

계 좌: 100-027-607588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1							6
				5			
2	3						
				7			
4				8		9	

가로열쇠

- 2002년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에서 결성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이다.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란 뜻이며, 이슬람 국가로의 독립과 이슬람 법체계인 샤리아 도입을 목표로 한다. 2014년 4월 무장 군인들이 '치복' 마을의 여자 기숙사를 습격해 230여명의 소녀들을 집단 납치한 사건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 지난 4월 21일 부활절 당일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국가이다. 8번에 걸쳐 조직적으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테러는 교회 3곳뿐 아니라, 호텔 4곳과 주택을 타겟으로 삼았으며, 이번 테러로 인해 약 300여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나라는 '2019 WWL' 기독교 박해 순위 46위 국가이다.
-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궁정 선지자. 그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였으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가난한 자의 암 양을 빼앗은 부자 비유를 들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 요단 강 동쪽 로글림의 부자 노인. 길르앗 사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경황없이 요단 강을 건넌 다윗 일행에게 음식과 침구 등을 제공했다. 반란을 진압한 뒤 다윗 일행을 요단 강까지 경호했고, 왕궁으로 거처를 옮겨 살게 하려는 다윗의 사례를 고사한 인물이다.
- 신약에 기록된 4복음서 중 하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00이 기록했다. 본서가 기록된 시기는 A.D.80-90년으로 추정되며 저자가 밧모 섬에 유배되기 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마을로 감람산 남동편 기슭에 위치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제자 둘을 보내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마을이다.

세로열쇠

- 사사 시대 베들레헴 출신의 부유한 농부. 살몬의 아들이자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과부된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룓과 결혼한다. 그와 룓 사이에서 태어난 오벧은 다윗 왕의 조부이며, 그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오르는 영광을 입는다.
- 아라비아어에서 유래된 말로 '몸이 길어 휘감기는 동물'을 가리킨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쉽게 제압할 수 없는 존재로서 '악어', 신화적 괴물인 '라합', '꼬불꼬불한 뱀 ○○○○' 등으로 번역된다. 하나같이 무섭고 두려운 이방 세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세고 악한 존재를 상징한다.
- '구별된 자'란 뜻. 일평생 또는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자를 말한다. 사사 삼손,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 세례 요한 등이 있다.
-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 죄인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분노를 멀리 두다', '오래 견디다', '형벌을 늦추다'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 '여호와와 영광'이란 뜻. 레위의 딸로 야르람의 아내이며 모세와 아론, 미리암의 어머니이다.
-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족속의 성읍.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지 난 주 정답

십	언	약
한	계	시
명	록	터
에	모	르
바	나	바
다	통	드
북	이	고
한	돌	니
한	니	엘

6월호 당첨자

김*미 (0662), 강*리 (7172), 황*리 (5692)님 축하 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마감 : 2019년 7월 10일)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3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10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여성 사역 캠페인

가족의 상실과 가난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과 싸우는
박해받는 전 세계 기독교 여성들과 함께해주세요.

여성 사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성사역자 훈련

치유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 사역에 대한 목회자 훈련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희망의 선물 2019 캠페인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려 ...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 비정기후원 ☐
은행:	은행계좌:	출금일: ☐ 5일 혹은 ☐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